

# ‘선’에 대한 집념으로 담아낸 풍경... ‘우병출 초대전’

4년 만에 나인갤러리 초대전  
28일까지 광주 동구 미로센터  
자연·도시 점경 담은 작품 15점  
뉴욕·파리 등 독보적 화풍 표현  
세필 붓으로 연말 풍경 그려내

연말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는 따뜻한 온기가 공존하는 시기다. ‘선의 작가’로 알려진 우병출 작가가 캔버스에 그려낸 도시풍경은 겨울의 삭막함보다는 연말의 서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광주에서 4년 만에 우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23일 오후 미로센터 1층은 그가 구현한 자연과 도시 점경으로 채워져 있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곧바로 보이는 뉴욕 전경을 표현한 6m 크기의 대작은 당연, 압권이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100호 이상의 작품 8점, 최근작 30호 이상 작품 5점 등 총 15점의 그림들이 공간을 수놓는다.

나인갤러리 전속작가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선으로 끝을 본다는 신념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하며 하늘, 바다, 산, 도시, 강으로 구현된 실제 풍경을 그려냈다.

우 작가의 작품들은 수평선 넘어 빼곡히 차오른 서사적 풍경으로 주위의 공기를 환기하는 힘이 있다. 특유의 부감법이 차용된 그의 산수화는 현대미술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보적인 화풍을 뽐낸다.

그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풍경’을 중심으로 선과 공간의 조화를 구축해 온 작가다. 세계 주요 도시의



우병출 작 ‘seeing’.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세밀하게 관찰해 서사적 전경을 사생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시각적 공간의 범위 확장으로 이어진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서울의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 한강 유원지, 북악스카이웨이를 비롯해 미국 뉴욕 록펠러 분수대 앞,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 라파에트 백화점 전망대, 시테섬 폰테프 다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리머 광장, 하와이 와이알라에, 홍콩의 마천루 그림 등은 눈에 보이는 광경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 또한 그가 작품 활동에서 지속 지향해 온 ‘본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

기는 시간으로 다가온다.

그는 직선과 곡선의 평행, 수직선을 가로지르며 자연과 도시의 점경(點景)을 담은 ‘Seeing’ 시리즈를 그려왔다. 그가 그림 제목을 모두 ‘Seeing’이라고 한 것은 사물을 보는 방법에 관한 집착에서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사실성에 기반해 선을 교차하거나 집적함으로써 ‘실경(實景)’을 구현해 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그에게 ‘본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제작 방식이자 태도다. 즉 ‘빛의 움직임’을 뜻한다. 빛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그의 서사를 통해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관찰하게 된다.

우 작가는 회화의 사실성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통해 캔버스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색채와 형태를 하나로 잇는 선의 미학에 빠져든다.

그가 관찰한 ‘선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예술가의 삶과 태도를 투영하고 있다. 매일 0.6mm의 작은 붓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붓끝에 유화물감을 찍어 14시간 이상 담담하게 절제된 선을 그려낸다. 이렇게 탄생한 우 작가의 작품들은 가필 없는 수작업으로 실제 풍경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숭고함이 배어있다.

전시장에 펼쳐진 그의 15점의 작품들을 보면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림과 동시에 산천이 주는 느낌을 극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아래를 내려보는 부감법은 그림의 압도감을 더한다.

그림 속 정교한 필치로 표현된 풍경들은 시점에 따라 동적인 대각선, 사선, 수직선,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빌딩, 아스팔트 위 사람들, 상점의 간판, 하늘과 바다, 항구도시, 산등성의 디테일이 더 살아난다. 투시하는 위치와 보는 각도에 따라 관람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빌딩, 다리, 건축물의 경우 사선, 대각선, 수직선으로 그렸으며, 산과 물은 미점으로 표현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아우른다.

이번 전시에서 앞서 우 작가는 “붓끝에 자신의 호흡을 담아 화면에 옮겨 담는 것은 기운생동이다. 산수화의 위대함은 현대미술을 다 담아내면서 거기에 기운을 더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서양 미학이 따라올 수 없는 동양 미학의 진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그는 동양의 전통을 현대적 시각으로 융합해 풀어내는 시도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양승찬 나인갤러리 대표는 “우병출 작가가 지난 2020년에 이어 광주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됐다”며 “그간 20여회의 개인전에 초대되며 국내를 대표하는 서양화가로 자리매김한 그의 전시를 관람하고 뜻깊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광주 동구 중앙로 미로센터 1층에서 열린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크리스마스 이브... 청춘 버스킹 공연 열린다

오후 2시 광주공원 빛포차거리  
청춘 광장 재탄생... 첫 버스킹  
캐럴·추억의 7080명곡 등 공연

크리스마스이브 한껏 들뜬 마음으로 거리를 나선 광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버스킹 무대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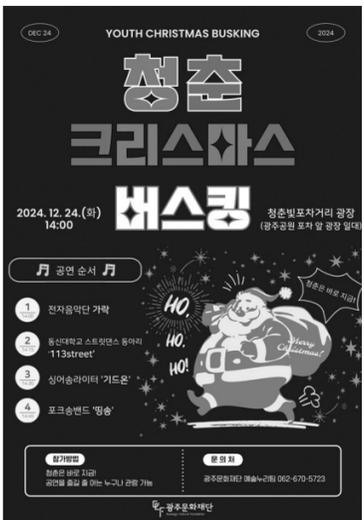
23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광주시가 새롭게 조성한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24일 오후 2~3시 ‘청춘 크리스마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실증사업 1호로 조성된 ‘광주공원 청춘빛포차거리 광장’을 청년들이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문화광장으로 만들어가는 첫 단추다.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캐럴과 추억의 7080명곡, 트로트 등 다양한 노래와 신나는 댄스 무대도 함께 준비됐다.

먼저 ‘전자음악단 가락’이 EDM 미디어 사운드의 흥겨운 트로트와 가요로 포문을 연다. ‘전자음악단 가락’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제 게임음악 크리에이터상을 수상한바 있는 단체다.

이어 동신대학교 공연예술무용학과에서 스트리트댄스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무빈업스튜디오 소속 연습생들로 이루어진 ‘113 street’의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113 street’은 지난 9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린 전국 대학·고교 대항전 ‘프린지리그’에서 배틀 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팀이다.

세 번째 버스킹 무대에 오를 청년 예술



인은 광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기드온’이다. R&B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11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오월의 노래’ 무대와 전국투어에 참여한 바 있다.

마지막 버스킹은 추억 음악 유투버이자 포크송 밴드로 은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핑송’ 밴드다. ‘핑송’ 밴드는 유투브 채널에서 7080명곡과 레트로 코믹 감성의 노래 등 10~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들로 추억 여행 콘텐츠 130여편을 공유해 왔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0월 ‘주말은 청춘’ 프로그램을 6회 개최해 광주공원 포장마차를 찾는 세대와 노년층을 아우른 새로운 청춘 문화의 장을 선보였다.

박찬 기자



이용우 작 ‘화조 8곡병’.

ACC 제공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협력전시 내년 2월28일까지 개최 자연 주제 7작가·8작품 ‘K-아트’ 가치 확산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내년 2월28일까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 미디어아트 협력전시 ‘모두의 도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시각예술 콘텐츠 확산을 위해 주중한국문화원,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선보이는 ACC 창·제작 작품으로 새롭게 기획된 미디어아트 순회전의 일환이다.

이번 순회전시는 ACC에서 지난 2022~2023년 선보인 ‘사유정원’, ‘물입미감’,

‘하늬풍경’ 전시의 창·제작 작품들로 구성했다. ‘자연’을 주제로 국내 근현대 화가들이 자연 속 사색을 통해 느낀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자리다. 우주의 모든 요소가 연결돼 순환한다는 동아시아 사상을 통해 형상을 넘어 심상으로 그 깊이를 확장해 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총 7명의 작가가 이번 전시에 참여해 8개의 작품(미디어 7점, 설치 1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지난해 야외전시 ‘하늬 풍경’의 이이남, ‘물입미감’에서 디지털 영상 미디어로 재해석된 근현대작가 김규진, 이용우, 현재까지 남중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허달재와 지난 2022년 ‘사유정원’ 전시 작품의 고희, 서동주, 정성윤 등이다.

ACC는 이번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협력전시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창·제작

작품들을 새롭게 기획해 세계 무대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중국에서 ‘K-아트’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ACC의 지원으로 제작된 우수한 창·제작 작품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많이 소개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력전시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국제 교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용민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은 “ACC에서 입증된 한국의 우수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중국에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K-아트를 중국에 적극 소개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이상향 그리고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양국의 새로운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